

여권 잠룡들 '설 호남 민심 잡기' 경쟁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오후 설 성수품 물가 점검을 위해 광주 양동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오른쪽 두번째)가 지난 10일 한전공대 예정부지인 나주 부영CC에서 캠퍼스 조감도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설 연휴를 앞두고 여권 잠룡들의 호남 방문이 잇따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설 연휴를 앞둔 지난 10일 광주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과 11일 이들 간 광주와 전남을 찾았다.

설 명절을 앞둔 상황에서 공교롭게도 호남 출신인 두 사람이 모두 광주와 전남을 찾았다는 점에서 지역 정치권과 지역민들이 관심을 보였다. 이들은 지역 현안사업 해결에 대한 의지 표명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민생 극복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호남 민심 챙기기로 지역민에게 다가섰다.

정 총리는 설 연휴 전날인 지난 10일 광주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주재한 뒤 수소 연료 전지 발전소 착공식 참석에 이어 서구 선별진료소, 양동시장, '광주형 일자리' 현장 방문 등의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 사령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지역 주요 현안 사업과 지역 민생까지 챙기는 '일석삼조'의 광폭 행보를 보였다라는 평가다.

정 총리는 10일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빛고를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투자협약 및 착수식에 참석해 "위대한 광주의 시대가 반드시 열릴 것이라 믿는다"며 "저 역시 광주 시대의 서막에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특히 "대한민국

정세균 총리·이낙연 대표 잇따라 광주·전남 방문

정 총리 "위대한 광주 시대 열릴 것...예산 아끼지 않고 투자"

이 대표 "한전공대법 등 광주·전남 현안 법안 2월 국회 처리"

은 광주의 희생으로 민주화를 이룩했지만, 호남과 광주는 산업화의 과정에서 소외당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 호남과 광주도 충분히 누리고 더불어 잘 살아야 한다. 정부도 정책과 예산을 아끼지 않고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주와 정부는 한 몸처럼 손발을 맞추고 있다. 민주화의 심장 광주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이끌 글로벌 선도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가 이처럼 광주의 미래에 대한 '예전'에 집중하는 데 대해 '호남 민심을 끌어안으며 사실상 대권행보에 시동을 걸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도 지난 10일과 11일 광주와 전남을 찾아 지역 현안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며 '고향 표심'에 구애했다. 그동안 국회에서 지지부진했던 한전공대 특별법, 아시아문화전당 특별법, 여순사건 특별법 등 지역 현안법안에 대해 2월 국회 처리를

약속하며 텃밭을 다졌다. 이 대표는 10일 나주 한전공대 부지를 찾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년 3월 (한전공대가) 개교하려면 특별법이 3월에는 처리돼야 한다"며 "2월, 3월 연속 국회가 열리는 데 가급적 2월 국회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다음날인 11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광주 지역 원로 문화예술인들과 만나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을 이달 안에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김태년 원내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합의하고 내려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간담회 중 광주에서 수학한 인연과 고향인 전남에서 성장 과정 등 호남과 인연을 반복해 강조하기도 했다.

전날 '한전공대 특별법' 신속 처리를 약속한 이 대표는 이날도 한전공대의 차질 없는 개교, 신재

생에너지 플랫폼 기업 육성 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에너지·자원 부처 독립 신설 제안 등도 다시 언급했다.

이 대표는 오후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소병철·서동용·김승남·김희재·주철현 의원, 허석 순천시장, 권오봉 여수시장 등과 함께 여순사건 위령탑을 참배하고 희생자 명복을 빌었다. 참배에 앞서 이 대표는 방명록에 "여순특별법으로 과거를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의 미래를 세우겠습니다"라고 썼다.

여순사건 당시 희생된 유족과 대화에서는 "(여순사건 특별법)을 이달 회기 안에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총리와 이 대표의 이번 방문은 더불어민주당 텃밭인 광주·전남에서 '설 명절 방문머리 민심'을 선점하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설 명절을 계기로 여권 내 대권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호남의 민심이 여권의 표심을 좌우하고, 특히 수도권 민심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대선 주자들의 호남 구애는 앞으로 더욱 뜨거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식당·카페 등 영업제한 해제

1.5단계 완화...5인 모임금지 유지

광주·전남에서 설 연휴를 기점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가 진정세를 보이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2단계에서 1.5단계로 내려갔다. 다만 그동안 코로나19 대확산 패턴이 진정세 직후 교회 등 종교시설발 대규모 확산이 재생했다는 점에서, '방심은 절대 금물'이라는 게 방역 전문가들의 일치된 목소리다. <관련기사 6면>

14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에선 이날 오후 6시 기준 타 시도 확진자(용산구 634명)와 접촉한 3명(광주 1947-1949)이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는 1949명으로 늘었다. 용산구 634명은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용산구 소재 순천향대부속 서울병원 직원으로, 설 연휴 하루 전인 지난 10일 광주를 방문해 광주 1947-1949번을 접촉했다. 접촉 감염자 중 2명은 광주 북구 모 종합병원에 근무하고 있어 환자 등 추가 감염이 우려된다.

전남에서는 다행히 이날 현재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 13일 나주에서 1명이 자가격리 중 증상 발현으로 확진됐으며, 다른 1명은 해외(세네갈) 유입으로 총 누적 확진자는 774명을 유지했다. 추석 연휴 기간 광주에서는 11일 6명, 12일 3명, 13일 2명 등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상당수는 자가 격리 중 감염이 확인돼 동선이나 접촉자가 없었다. 전남에서는 같은 기간 4명, 0명, 2명을 기록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코로나19가 진정세로 접어들었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의 바뀐 방역지침 등을 받아들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했다. 시·도는 15일부터 2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정부 지침대로 1.5단계로 조정하되,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이어가기로 했다.

시·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그동안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유흥시설은 밤 10시까지 영업을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룸당 최대 4명까지만 허용하고 노래는 1인만 가능하며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은 금지했다. 그동안 밤 10시까지 영업을 가능했던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오락실, 독서실 등은 시간제한 없이 영업을 가능해졌다.

종교 활동은 좌석 수 기준 30% 이내에서 허용된다. 다만 대면 모임 활동·행사, 식사, 성가대 활동, 타지역 교류·초청행사는 금지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출입 인원을 500명 미만으로 하고 공공시설, 놀이공원, 눈썰매장, 스케이트장은 수용 인원 50% 이내에서, 스포츠 경기는 좌석 수 30% 이내에서 가능하다.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계속 금지된다. 다만 직계가족은 동거하지 않더라도 5인 이상 모임이 가능하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에 세계 첫 LPG·LNG 듀얼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시, 중부발전·SK가스 등과 투자협약·착수식

세계 최초로 액화석유가스(LPG)와 액화천연가스(LNG)를 함께 사용하는 수소 연료 전지 발전소가 광주에 건립된다. 연료 전지란 물의 전기 분해 역반응을 통해 전기와 열을 동시에 얻는 에너지다. 광주시는 지난 10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한국중부발전, SK가스, 두산건설, SK증권과 '빛

고을 수소 연료 전지 발전소 투자협약 및 착수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이용섭 광주시장,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박형구 한국중부발전사장, 김진호 두산건설사장, 윤병석 SK가스사장, 김신 SK증권사장, 윤영덕 국회의원, 민형배 국회의원,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 지역 주요인사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빛고를 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세계최초 LPG-LNG 듀얼 시스템을 적용한 국내 첫 '그린 뉴딜'

모델이라는 점에서 국내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설치 면적이 태양광의 50분의 1에 불과하고 소음이 적으면서도 발전 효율은 월등하다는 장점이 있다. 발전소는 광주시 서구 치평동 제1 하수처리장 유휴 부지 1만5843㎡에 민간 자본 815억원을 들여 12.3MW급 용량으로 건립된다.

내년 8월 준공되면 시 전체 연간 전력 소비량의 1.1%에 해당하는 9만5000MWh의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이는 3만3000여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광주시청과 김대중컨벤션센터 등 26개 시설 그리고 아파트 단지 480가구 등에 공급된다.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가 본격 가동되면 기존 화력발전소 대비 연간 5359TOE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1만2588t의 온실가스 감축효과와 함께 공기 중 미세먼지를 제거해 성인 13만여 명이 호흡할 수 있는 공기를 정화하는 등을 다양한 환경보호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수소 경제는 21세기 세계 경제를 이끌어나갈 핵심 원동력이고 그 맨 앞자리에 대한민국이 서 있다"면서 "수소경제가 광주의 미래를 이끌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슈퍼레티놀 단 2주만에 주름잡다

| 아이오페 레티놀 엑스퍼트 0.1% |

주름을 위한 당신의 노력들,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요?
이제, 주름보다 강한 슈퍼레티놀로
확실한 주름 개선 효과를 느껴보세요

레티놀은 아이오페

IOPE

2weeks
고함 고함 새틴이 눈가 및
입 주변 등 민감부 2주간에
IOPE LAB